

주말기획 | ‘편의 전쟁’ FA시장이 열린다…‘특급포수’ 양의지·이재원을 잡아라

두산 양의지 - SK 이재원

양이가 ‘역대급 상한가’를 칠 수 밖에 없는 이유



- 특수성 국내출신에 공격수비 겸비
- 희소성 당분간 거물 FA포수 없어
- 미래성 30대 초반 나이 미래 창창

한국시리즈(KS·7전4승제) 종료와 함께 다사다난했던 2018시즌이 비로소 모두 끝났다. 본격적인 스토브리그의 시작, 이 시기에 구단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은 바로 ‘전력보강’이다.

접근 방법은 다양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다. 팀 전력을 올해보다 더욱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욕심은 1위부터 10위까지의 모든 팀이 똑같다. 이를 위해서는 프런트의 발 빠른 움직임이 필수다. 스토브리그는 현장 중에서도 구단 살림을 직접 꾸리는 프런트의 능력을 검증받는 시기다.

프레이저트(FA)는 구단이 전력보강을 단숨에 기대할 수 있는 접근 방법 중 하나다. 검증된 자원들이 시장에 나오고, 해당 선수에 관

심이 있는 구단들은 금액을 제시해 선수를 영입한다. 소위 돈으로 타구단과의 경쟁을 통해 승부를 보는 전쟁, ‘편의 전쟁’이다.

2019 예비 FA 자원 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단연 양의지(31)와 이재원(30)이다. K S 우승팀과 준우승팀의 주전 포수들이 모두 시장에 나온다. 둘은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에서도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현존하는 포수들 중 1·2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수라는 포지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공수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에서다. 수비로는 투수들을 리드로 이끌며 안방마님 역할을 하고, 공격에서는 타순의 한 자리를 차지해 타석에 선다. 양의지와 이재원은 공수를 겸비한 자원들로 벌써부터 시장에서 상한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삼성 라이온즈는 2018 FA 포수 자원 강민호(33)를 발표액 80억 원에 영입

했다. 팀 리빌딩을 위해 ‘센터라인’ 강화를 원했고, 노련한 포수 자원이자 공수 능력이 검증된 강민호를 선택했다. 결과는 성공. 2018시즌을 6위로 마무리하며 이전해보다 순위를 세 계단이나 상승시켰다.

당분간 대어급 포수가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둘의 시장가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양의지와 이재원은 30대 초반의 젊은 포수로 아직도 미래가 창창하다. 당장 팀으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4년 활약은 거뜰히 기대할 수 있는 포수들이다.

예비 FA 자원 중 최대어라 할 수 있는 양의지는 사실상의 금액 가이드라인이 잡혔다. 지난해 강민호를 웃도는 금액이 나올 것임이 매우 유력하다. 이재원 역시 우승팀인 SK가 ‘집토끼 단속’을 철저히 할 확률이 높다.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역시 금액. 두 안방마님의 FA 행보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 지, 이번 스토브리그의 최고 화두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2003년 현대 떠난 박경완, SK 역사를 바꾸다

역대 포수 FA, 어떤 영향 미쳤나

2000년 김동수 등 대형이적 총 5차례 올 강민호 품은 삼성 리빌딩 성공사례

포수는 KBO리그에서 귀한 포지션으로 대접 받는다. 타 포지션에 비해 정상급 포수를 키워내기까지 많은 출장경기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경험을 쌓는 시간이 길어 포수 FA도 쉽게 나오지 않아 희소성도 높다.

그만큼 포수가 프레이저트(FA)로 타 팀에 이적 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2000년 시작된 FA계약에서 포수가 타 팀 유니폼을 입은 사례는 2000년 김동수(LG 트윈스→삼성 라이온즈), 2003년 박경완(현대 유니콘스→SK 와이번스), 2012년 조인성(LG→SK), 2016년 정상호(SK→LG), 2018년 강민호(롯데 자이언츠→삼성)까지



LG→삼성 김동수 현대→SK 박경완 롯데→삼성 강민호

단 5차례뿐이었다. 2009년 롯데는 두산 홍성흔을 영입했지만 마스크를 벗고 전문 지명타자로 변신한 후였다.

한국시리즈(KS) 우승에 목말랐던 삼성은 FA제도가 도입되자마자 해태 타이거즈에서 투수 이강철, 그리고 LG에서 당대 최고 포수 중 한명이었던 김동수를 영입했다. 김동수는 삼성에서 진감응과 치열한 주전 다툼을 벌였고 트레이드를 통해 SK를 거쳐 현대에서 제2의 전성기를 보냈다.

‘꾸준함 대명사’ 박용택 3번째 FA, LG에 남나

이색 FA

1일차 놓쳤던 김민성은 생애 첫 FA 대박 경험 윤성환·장원준은 두번째

2019 예비 프레이저트(FA) 시장에는 유독 사연 많은 선수들이 많다. 자의 혹은 타의로 FA 재수를 선택하게 된 선수, 인생에 단 한번도 있을까 말까한 FA를 세 번이나 선언하게 될 선수 등 사연도 가지각색이다. 최대어는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31)지만 이색 FA로는 누구 하나 사연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단순히 액수 외에도 계약 기간, 옵션 등 여러 세부 사항까지 관심이 가는 선수들이다.

●‘LG의 레전드로?’ 박용택 3번째 FA 도전

LG 트윈스 박용택(39)은 올해를 끝으로 자신의 두 번째 FA 계약이 끝났다. 2010시즌 종료 후 3+1년 34억 원에 첫 FA 계약을 맺었고, 4년 뒤인 2014시즌 종료 후에는 4년 50억 원에 다시 줄무늬 유니폼을 입었다.

30대 후반임에도 꾸준한 활약을 펼쳐 대표적인 모범 FA로 꼽힌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7년 연속 150안타를 때렸고, 2009년부터는 10년 연속 3할 타율을 기록했다.

지명타자로 밖에 기용할 수 없다는 점은 큰 약점이다. 내년이면 만 40세가 되는 만큼 기량 하락 역시 구단에서 생각할 변수다.

●자의적 FA재수 이용규, 타의적 김민성

한화 이글스 이용규(33)는 2017시즌이 종료된 후 FA를 선언할 수 있었으나 스스로 재수를 선택했다. 자신의 값어치를 2018시즌에 확실하게 증명할 뉘 시장에 나가겠다는

의지에서였다. 올해 134경기에서 타율 0.293, 82득점, 30도루를 기록.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좋아진 성적을 남겼다.

넥센 히어로즈 김민성(30)은 첫 FA지만 재수의 성격이 강하다. 트레이드 미승인 사태로 인해 1일 차이로 2017시즌 종료 후 FA 권리를 놓쳤다. 3루 수비는 물론 큰 것 한방을 때릴 수 있는 펀치력도 가지고 있어 이번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100승 투수 윤성환·장원준도 두 번째 FA

첫 FA 계약에서 초대박을 터트렸던 ‘형님’들도 다시 시장에 나온다. 삼성 라이온즈 윤성환(37)과 두산 베어스 장원준(33)이 그 주인공들이다. 윤성환은 2014시즌 종료 후 4년 80억 원, 장원준 역시 같은 시기에 4년 84억 원에 도장을 찍었다. 두 베테랑의 올 시즌 성적은 앞선 시즌과 비교해 썩 좋지 않았다. 이전과 비슷한 금액은 기대하기 어렵다. 단순히 금액보다는 계약기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장은성 기자

▶1면 ‘편의 전쟁, FA시장’에서 이어집니다

김 감독은 양의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다. “양의지가 감독 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버텨야 하는데…” 양의지에 대한 감독의 깊은 신뢰와 믿음이 듬뿍 담겨진 말이었다.

양의지는 ‘두산 전력의 절반’이라는 극찬

을 받고 있다. KS 폴타임 기용은 감독 스스로 두산에 양의지가 꼭 필요한 이유를 강렬하게 표현한 메시지로도 풀이할 수 있다. ‘곰의 탈을 쓴 여우’라는 별명을 가진 김 감독은 누구보다 양의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두산은 외부 FA보다 내부 육성에 공을 들이는 팀이다. 그동안 ‘화수분 야구’라는 큰 성

과도 올렸다. 그러나 양의지를 보유함으로써 얻는 전력의 우위는 단기간에 대체가 어렵다.

이제 공은 두산 경영진의 판단, 그리고 양의지의 선택으로 넘어갔다. 내년 양의지가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KB O리그 전체 판도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역대 최고의 포수 FA 시장이 열린다. 개장을 앞둔 이번 KBO리그 FA 시장에는 거물급 안방마님 두 명이 한꺼번에 매물로 나온다. 주인공은 SK 와이번스를 우승으로 이끈 이재원(사진)과 자타공인 현역 최고의 포수로 불리는 두산 베어스 양의지다.

뉴스